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7년도 포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97 홍해작전 6월 6일(금) 진군 시작

# 홍해를 건너 시온에 이르도록

'97 홍해작전이 6월 6일(금)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부터 교회 주변은 원근각처에서 새벽기도회에 참여키 위해 모여 드는 성도들로 붐볐고 홍해작전 참모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환영과 격려의 인사로 성도들을 맞이했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로서 민족과 교회, 가정과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바란다”며 홍해를 건널 뿐 아니라 약속하신 땅 시온에 이르도록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첫날인 6일에는 작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일곱가지 공동 기도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특히 성도들은 이날 배포된 기도제목카드를 작성해 교우들과 나누며 서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 새벽기도회 후 예배당 앞에 마련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성도간의 교제를 나눴다. 홍해작전본부에서는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홍해작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같은 식탁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회는 집이 멀어 새벽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교회 2, 3층을 숙소로 개방키로 했다.

## 교회 새 일꾼 100명 피택

### 지난 주 공동의회서 집사 25명, 권사 75명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제 4대 안수집사와 권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피택된 안수집사는 모두 25명으로 당회의 추천을 받은 60명의 후보자 중 투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됐다. <명단과 사진 4면> 피택안수집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당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거쳐 오는 11월 마지막 주 교회설립 6주년 기념일에 집사안수를 받게 된다. 단 교육에 1/5 이상 결석하거나 최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된다.

또 권사는 당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65명과 70세 이상의 권사후보 10명을 포함 모두 75명이 새로 인준됐다. 새로 권사로 뽑힌

75명은 안수집사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권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에 선택된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강영자 | 강풍자 | 강희자 | 고윤화 | 권순단 | 김명숙 |
| 김숙자 | 김연옥 | 김영연 | 김예한 | 김옥남 | 김용숙 |
| 김인숙 | 김정수 | 김정희 | 김현주 | 김혜자 | 남미희 |
| 박경희 | 박순자 | 박연순 | 박용균 | 박정순 | 박정옥 |
| 박정원 | 손재검 | 송정희 | 양순임 | 양옥자 | 원복순 |
| 유명석 | 유복한 | 윤갑숙 | 이경숙 | 이규희 | 이수자 |
| 이순례 | 이영희 | 이용자 | 이은옥 | 이은희 | 이인선 |
| 이정자 | 이혜순 | 인찬희 | 임순자 | 장낙희 | 전완순 |
| 전용순 | 전정숙 | 전행자 | 정봉금 | 정정숙 | 조삼원 |
| 조항영 | 최금자 | 최길옥 | 최양혜 | 최숙희 | 하정자 |
| 한정원 | 함은희 | 허정자 | 황 훈 | 황정임 | 장대방 |
| 권임정 | 김모순 | 안연심 | 김옥향 | 배영애 | 양태영 |
| 정영순 | 박이준 | 송인순 |     |     |     |

## 가족 초청 만찬회(16일) 1주일 앞으로

### 어제까지 2백명가량 신청... 결심 위한 기도 요망

6월 16일 열리는 가족초청만찬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만찬은 짝믿음 가정의 가족(가족중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 중에 있는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엔 삼정호텔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 만찬회는 1부에서 이종윤 목사의 메시지로 경건회를 갖고 2부에서는 강석우 집사의 사회로 황수관 교수의 건강강좌가 있다.

현재까지 참석을 희망한 가족은 모두 2백명가량으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온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요망되고 있다.

## '97 홍해작전 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질서, 북한 동포를 위해...
2.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학교, 12개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3.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일가친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농어촌 110개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지,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5. 익한 문화 추방과 크리스찬 문화 형성을 위해  
퇴폐문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퇴치 및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6. 개인의 신앙부흥을 위해  
말씀 · 기도 · 찬송 · 전도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도록...
7.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건축허가와 민원의 해결, 기공예배와 건축일정을 위해...

### ✧ 순례자 컬럼 ✧

## 불탄 포도넝쿨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다. 포도나무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 목질은 천하고 약하고 크지도 못하다. 거르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존영을 스스로 상실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에 비해 유대인은 초라하고 힘이 없는 백성이다. 기동감도 못할 포도넝쿨이 열매를 바로 맺지 못하면 화목감 밖에 안될 것이다.

열매없는 나무는 땅만 허비하는 것이니 불태워 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 우리도 거짓된 열매가 아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주인을 기쁘게 해야겠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슬픔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슬픔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약 10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서 살았지만 막벨라 굴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 1.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몇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때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며 그 다음을 일할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분노를 가족, 친구 혹은 의사,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가온 불행을 연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타협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수용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고통을 가라앉히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상대방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과정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죽음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의 감정은 크게 흔들리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하며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더 큰 이해를 해주지 못한 것을 자책합니다. 또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감정들은 곧 지나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때때로 사람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의 감정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해서 상대방의 죽음을 맞고도 불과 2, 3일 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100일 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죽음에 순응하고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며 그 변화를 더 좋은 삶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들은 슬픔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를 섬기는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 2.우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까

(1)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알고 잠잠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산이 무너

## 울음을 그쳐야 할 때



이종운 목사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창 50:14)

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올 것입니다(시 46:1, 2, 10).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 (2)감사하라

슬픔이나 고통은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체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시 23:4). 우리에게 죽음이 직면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 (3)자기 연민을 거절하라

자기 연민은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난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 과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버리고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 (4)타인의 고통을 수용하라

타인의 고통까지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내게 됩니다.

#### (5)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라

사도 바울은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일으킵니다.

#### (6)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오히려 형제를 돕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형제를 돕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사 58:10 - 12).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만족케 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 3. 죽음과 부활

기독교인에게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영별로 들어가는 부활인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 18절의 말씀은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부활과 재회를 기다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을 때 자신의 한 부분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들어간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 곁에 우리의 일부를 묻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슬픔은 정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세미나 다음 학기를 기다리며

## 7백 개씩 7백 번 말은 김밥

전인화 권사(권사회 회장)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끝났다. 오뉴월 불도 쪼다말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듯이 월요일 새벽마다 김밥 싸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으면서도 이제 서운한 맘 그지 없다. 참으로 말하지 않고는 전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동서사방에서 오시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려고 월요일 새벽 6시부터 권사들은 700개의 김밥을 만들었다. 매주 약 50여 명 권사가 참여했으니 이번 학기에도 연인원 500여 품이 들었다.

6,70세의 고령인 권사들이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시작되면 월요일을 기다린다. 집이면 권사들은 새벽에 오기가 힘드니 주일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머물며 식당에 혹은 남은 밥이 있으면 한 술씩 먹고 그나마 없으면

끓기까지 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에 참여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의 종들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주고 "오시오" 한들 누가 그 새벽에 그토록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감격하도록 감사하다. 누가 조식을 짜지도 않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건만 시행착오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착착 진행되어 정확한 시간에 끝을 낸다.

오전 8시에 갖는 식사시간의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오시는 권사, 부식값을 절약해 반찬거리를 가져오시는 권사들의 정성으로 아침식사는 늘 즐거움이 넘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감사한 일이다.

김밥을 말며 썰며 은박지에 포장하며 박스에 담으며 운반하며 신바람 나게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충만해서 한바탕 부흥회도 벌어지곤 한다.

서울교회 창립 이래 11학기 동안 100번이 넘게 김밥을 말은 셈이다. 이제는 모양도 비교적 고르고 간도 잘 맞추는 프로들이 다 되었다. 모쪼록 전국의 목회자들이 세미나에서 영적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충만히 잡수시고 각 교회에 가서서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에 기여하시기를 기도드리며 각각의 교회 전도회와 권사회에 서울교회 봉사의 기쁜 모습이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교회에 나타내지 않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말없이 뒤설거지를 하는 여자집사님들, 물질로 몸으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채워주시길 간구하게 된다.

다음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또 기다리는 권사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새 일꾼이 되고 보니

## 부족한 죄인에게 부여된 헌신의 기회

이상호 집사

"따르릉, 따르릉"

지난 주일 저녁 좀 늦은 시간에 벨이 울렸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귀에 익은 목소리의 장로님이셨다. 연이어 몇 분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나니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가슴에 차올랐다.

열기 가득한 1층 예배실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 성도들을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붉은 죄인은 아직 안수집사로서 무자격자이니 유보시켜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거절하는 것 역시 교만이며 불순종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 망설이는 중에 투표를 마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결정하시므로 피택의 여부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더욱 충실한 종으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울 기동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도 거룩한 짐을 지워 주시다니! 게으르고 무능한 종에게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헌신을 요청하신 걸까. 자정이 훨씬 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어 사무실로 나가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아 보았다. 허물과 불충한 죄악들이 필름처럼 머리 속에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회개 의 눈물이 불을 적셨다.

"주여! 주께서 이 죄인에게도 성결한 옷을 입히시면 입겠나이다."

## 겸손히 봉사하여 귀한 그릇으로 쓰이길

오광환 집사

이번 안수집사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는 마치 대학입시에 재수한 학생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되었다.

3년 전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

던 많은 분들이 안타까와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때에도 많은 기도와 성원이 있었고 내 스스로도 피택되리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투표결과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교만이었던 것을 회개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님께서 쓰실만한 깨끗한 그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했다.

교회의 직분이란 세상의 직분과는 엄연히 달라서 명예와 권위보다는 헌신과 봉사의 의무가 더 큰 것이기에 사적인 이익을 기대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는 일만 남은 것이리라.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며 내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바치고 우리 교회의 최대과제인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헌당의 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는 각오만이 새롭다.

더욱이 이제는 가정과 직장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모범을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참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 2백명 참가 열띤 경연

### 지난 30일 가족찬양대회

지난 30일(금) 가족찬양대회가 1층예배실에서 열렸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과 다락방 식구들의 사랑과 화합을 다진 이 자리에는 가족창 8개 팀, 다락방 중창 및 교구 합창 11개 팀 등 모두 2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참가팀들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자유곡 1곡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음악성, 표현성, 태도, 청중들의

반응 등이었으며 교구 합창인 경우 참가인원 등도 고려하였다.

가족창 믿음상은 김혜언 집사 가정, 소망상에 최형렬 집사 가정, 사랑상에 김인수 집사 가정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교구합창은 6교구가 믿음상을, 12교구와 4교구가 소망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각 가정과 다락방의 음악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대회를 준비하면서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어 좋았다는 후문이다. 대회가 있기 전 퇴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각 다락방에서는 저녁식사 대응으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는 교제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 지난 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 안수집사들



이번생



오광환



박두영



김세재



나중영



최형렬



이승우



김영주



김형택



이계홍



이완형



백수남



류중관



한길동



김인수



맹선재



홍정선



신용식



안의경



최용길



오형철



우지원



이태상



이상호



서춘식

#### 교우동정

\*한현숙집사(임마누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와 강민희선생(시온찬양대 지휘)은 10일(화)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애음회' 피아노 듀오연주회에서 각각 연주한다.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노문환 장로·장정화 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S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베아방송(HLAZ 15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에 참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새로 선출된 권사와 안수집사들을 위해
3. 가족초청만찬회에 초대될 믿지않는 가족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